

11월14일(월)/히3:1~19 (3)

**제목: 오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권고한다(12절).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 때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다(8~11절, 15~18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1절, 18절)는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3절)고 하였다. ‘오늘’이라는 말에서 그 비장함을 엿볼 수 있다.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다. 오늘 은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이다. 우리는 쉽게 내일을 말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내일이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당장 하나님께 순종하여 돌이켜야 한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결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1월15일(화)/히4:1~13 (1)

**제목: 듣고 믿으면 오는 안식의 복**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지만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2~3절). 복음을 수용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은 연결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복음을 받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7절)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완악하면 안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 안식이 주어져있다(9절). 믿기 위해서는 우선은 들어야 한다. 세상에는 유익하고 좋은 말들이 많다. 그것을 무관심하게, 경솔하게 비판적으로 듣는다면 결코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셨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그리고 묵숨을 건다면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자칫 우리는 성경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눈부신 일들은 회고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하나님의 힘은 이전 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귀는 이전 보다 어두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굉장했지만 지금도 굉장하다. 하나님은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항상 굉장한 분이시다.

11월16일(수)/히4:1~13 (2)

**제목: 성경은 쪼갬니다.**

성경은 살아있다(12절). 성경은 죽어서 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돌아다닌다. 날아 다니고, 넘어 다니고, 파고 다니고, 뚫고 다닌다. 성경의 활자는 이렇게 살아있다. 성경은 활력이 있다(12절). 활력이 있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다. 한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책이나 영화도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성경에는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쪼려서 쪼개는 능력이 있다(12절). 양면이 다 예리한 날로 장착되어있어서 흔히든 영이든 육체든 거기에 닿기만 해도 다 쪼개어지게 된다. ‘쪼개진다’는 말은 예리한 비판을 받아 드러난다는 뜻이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경 앞에 서면 그의 감성과 지성과 영성이 구역질만큼 추악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면 모든 사람이 다 벌거벗듯이 성경 앞에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13절). 내가 날마나 이 성경 앞에 겸손히 서면 그 성경은 날마나 나를 찌르고 쪼개어서 나를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한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가 대부분 자기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다.

11월17일(목)/히4:14~16

**제목: 동정심이 많으신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14절).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이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도, 성자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접촉을 위해 중재하신다. 그는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은 현재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여전히 지상에 있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성자 하나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빌2장).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분절이시다. 예수님은 선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초월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만 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의 경배만 받아 잡수시며 수염을 어루만지며 ‘에헴’하는 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는 초월자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깊은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계신다(15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으며 또 시기적절한 때에 그 분이 주시는 도움을 받는다(16절).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제 때에 은혜를 받는다.

11월18일(금)/히5:1~10

### 제목: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1)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론 교리를 가르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그는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한다(1절).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 희생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며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다(2절). 그리고 자기도 연약하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한다(3절).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임명한 자라야 한다(4절).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 세습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임명하셨다(5절). 대제사장은 사람과 일체되지 않고는 이 직을 수행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경험으로 느껴야 하며 그들을 깊이 동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 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냉정하거나 쌀쌀맞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는 자는 항상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